

Overweight

로보틱스 (Overweight)

코스닥 액티브 ETF 영향권에 놓인 국내 로보틱스 산업 (시나리오 가정에 따른 투자전략)

코스닥 액티브 ETF 상장 본격화가 가지는 두 가지 함의

3/10 이후 국내 주요 운용사의 코스닥 액티브 ETF가 상장됨에 따라 코스닥 비중이 매우 높은 국내 로보틱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코스닥 액티브 ETF의 상품 출시가 가지는 함의는 크게 두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상품 추종 지수를 코스닥 150이 아닌 코스닥 종합지수로 설정했다는 점이다. 이전까지 주요 운용사들의 코스닥 지수 관련 ETF 상품은 모두 코스닥 150을 추종지수로 설정해왔다. 즉 코스닥 150 지수에 포함되어야만 구성 종목에 포함될 수 있었던 것이다. 반면 주요 코스닥 액티브 ETF의 경우 코스닥 종합지수를 추종 지수로 설정하고 있고, 이에 코스닥 150 지수 포함 외 종목 또한 상품에 편입할 수 있다. 실제로 주요 코스닥 액티브 ETF 구성 종목을 살펴보면, 코스닥 150 지수에 포함되지 않았던 씨메스, 한국피아이엠 등의 업체를 찾아볼 수 있다 [그림 1].

둘째, 기존 ETF 상품들과 달리 유동적인 종목 비중 및 구성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ETF는 특정 지수를 추종하여 기계적으로 구성 종목이 결정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매년 1~4차례의 리밸런싱 이외에는 상품 구성이 크게 변하지 않아, 이는 패시브 ETF라는 명칭으로도 불린다. 반면 액티브 ETF의 경우는 추종 지수는 마찬가지로 존재하지만, 구성 종목과 비중을 유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를 통해 ETF 상품의 한계로 지적되어 왔던 종목 구성에 있어 괴리율을 줄일 수 있다. 국내 로보틱스 산업은 Boston Dynamics, Tesla 등 주요 휴머노이드 업체를 중심으로 한 이벤트 플레이 성격이 강하고, 이에 주도주 또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뀌곤 한다. 대부분의 기존 ETF들의 경우 이와 같은 시장 변화를 종목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반면, 코스닥 액티브 ETF의 경우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국내 로보틱스 산업 관련 액티브 ETF가 이미 상장되어 있기는 하나, 코스피 대형주 편입 비중이 높아 코스닥으로 이루어진 국내 로보틱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음).

코스닥 액티브 ETF 확대는 주가의 양방향 모든 측면에서 지대한 영향 전망

주요 코스닥 액티브 ETF에 대한 시장 관심은 높고 (3/20 종가 기준 TIME 코스닥액티브 AUM: 5,463억원, KoAct 코스닥액티브 AUM: 1.1조원), 이와 같은 ETF 상품발 수급 유입은 국내 로보틱스 산업에 양방향 모든 측면에서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점쳐 볼 수 있는 두 가지 사례를 아래에 정리해보았다.

첫째, 코스닥 150 ETF AUM이 확대되며 주요 로보틱스 업체가 수혜를 입은 사례이다. 정부의 코스닥 지수 활성화 정책 등에 따른 기대감으로 주요 자산운용사의 코스닥 150 ETF에 시장 수급이 집중된 바 있다. 2026년 상반기 기준 코스닥 150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관련 종목은 다음과 같은데 [그림 2], 이 중 유일로보틱스, 클로봇의 경우 당시 개인 및 일반 기관의 시장 관심이 크지 않았음에도, 코스닥 150에 편입된 시점과 맞물려 ETF 수급에 따른 수혜가 관찰된 대표적인 예다 [그림 3~4].

둘째, 특정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ETF 상장함에 따라 전체 로보틱스 산업이 반등한 사례다. 현재 상장되어 국내 로보틱스 산업 관련 ETF는 4종인데, 대부분의 상품이 코스닥 외 대형주 편입 비중이 높다. 반면 2026년 1월 6일 상장된 TIGER 코리아휴머노이드로봇산업 ETF의 경우 높은 코스닥 종목 비중을 가져가고 있다 [그림 5]. 이에 상장 이후 레인보우로보틱스 외 중소형주 업체들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국내 로보틱스 산업의 레벨업이 관찰된 바 있다 [그림 6~7].

그림1. 주요 자산운용사의 코스닥 액티브 ETF 내 포함되어 있는 국내 로보틱스 업체 목록 및 편입 비중: 전체 코스닥 지수를 추종해 편입 종목과 비중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편입 종목	시가 총액 (억원)	편입 비중 (%)	코스닥 내 비중 (%)
삼성자산운용 KoAct 코스닥 액티브 ETF 내 국내 로보틱스 업체			
레인보우로보틱스	115,235	4.00	2.32
로보티즈	34,873	3.00	0.58
에스피지	24,417	2.00	0.46
한국피아이엠	5,872	2.00	0.13
씨메스	3,780	1.00	0.07
타임폴리오자산운용 TIME 코스닥 액티브 ETF 내 국내 로보틱스 업체			
레인보우로보틱스	115,235	5.05	2.32
로보티즈	34,873	1.99	0.58
에스피지	24,417	1.47	0.46
한국피아이엠	5,872	2.19	0.13

자료: iM증권 리서치본부

주: 각 종목 시가총액의 경우 3/23 종가 기준. 편입 비중의 경우 상장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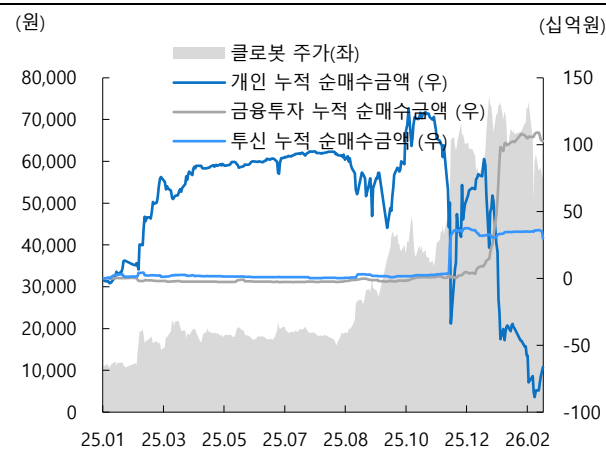
그림2. 25.1H~26.1H 기간 내 코스닥 150에 포함된 국내 로보틱스 업체: 신규 코스닥 150 편입 종목의 경우 코스닥 150 관련 ETF 수급에 기인해 추가 상승 국면이 관찰되어 옴

25.1H 코스닥 150 포함 종목	25.2H 코스닥 150 포함 종목	26.1H 코스닥 150 포함 종목
레인보우로보틱스	레인보우	레인보우
고영	하이젠알앤엠	에스피지
에스피지	고영	고영
큐렉소	에스피지	하이젠알앤엠
인탑스	큐렉소	클로봇
	인탑스	유일로보틱스
		유진로봇
		로보티즈

2025년 이후 섹터 내 코스닥 150 지수 편출 종목은 없었고, 매 반기 2~3개 종목 신규로 편입됨. 해당 종목들은 코스닥 150 지수 상승 국면에서 수혜를 입어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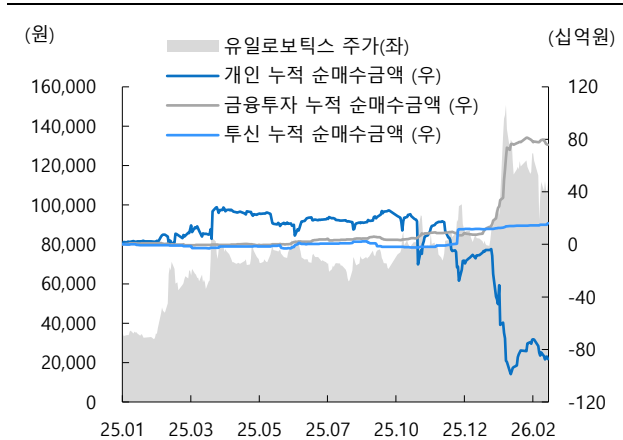
자료: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 클로봇 주가 및 투자 주체별 누적 순매수 금액 추이: 금융투자자로 집계되는 LP들의 현물 바스켓 매수 흐름은 곧 ETF 수급을 의미 (1)



자료: Quantiwise,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4. 유일로보틱스 주가 및 투자 주체별 누적 순매수 금액 추이: 금융투자자로 집계되는 LP들의 현물 바스켓 매수 흐름은 곧 ETF 수급을 의미 (2)



자료: Quantiwise, iM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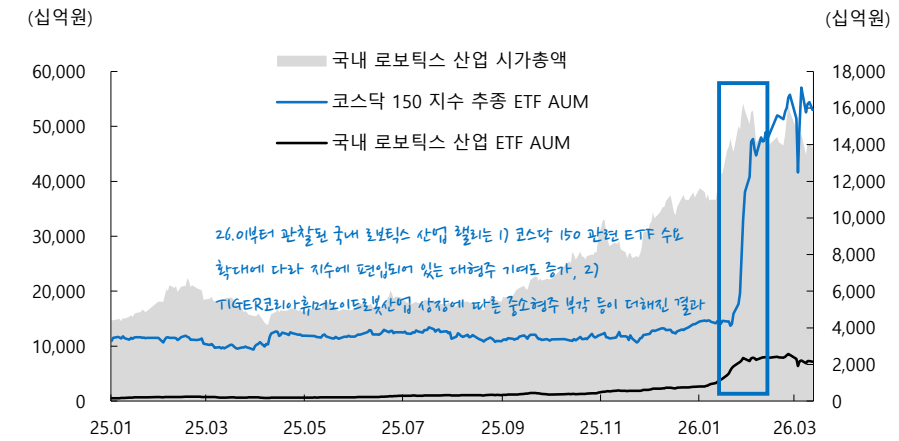
그림5. 주요 국내 로보틱스 산업 관련 ETF 종목 구성 현황: 2026년 1월을 기점으로 코스닥 내 여러 로보틱스 업체들이 ETF 상품에 본격적으로 포함되기 시작

HANARO K 휴머노이드 테마 TOP 10 구성 비중 (%)		KODEX 로봇액티브 구성 비중 (%)	
상장일: 26.02.26		상장일: 22.11.15	
현대차	15.1	삼성전자	9.9
레인보우로보틱스	14.6	레인보우로보틱스	8.4
원익홀딩스	10.4	로보티즈	7.2
로보티즈	10.3	현대오토에버	6.1
에스피지	10.0	현대차	5.4
두산로보틱스	9.6	에스피지	5.3
삼현	8.4	두산로보틱스	5.2
하이젠알앤엠	7.9	SK하이닉스	4.7
현대오토에버	6.9	현대모비스	4.4
HL만도	6.2	뉴로메카	4.1
기타	0.6	LG전자	3.7
TIGER 코리아휴머노이드로봇산업 구성 비중 (%)		네이버	3.5
상장일: 26.01.06		유진로봇	3.3
레인보우로보틱스	17.7	HD현대	3.2
에스피지	11.0	클로봇	2.5
로보티즈	10.7	유일로보틱스	2.3
두산로보틱스	9.3	KT	2.1
뉴로메카	9.1	삼성에스디에스	1.9
유진로봇	7.2	원익홀딩스	1.7
현대무팩스	6.3	카카오	1.7
하이젠알앤엠	6.2	큐렉소	1.6
현대오토에버	5.4	삼현	1.4
LG씨엔에스	3.9	현대로템	1.1
유일로보틱스	3.3	에스비비테크	0.9
로보스타	3.1	고영	0.9
삼현	3.0	제이브이엠	0.8
엔젤로보틱스	1.6	하이젠알앤엠	0.8
클로봇	1.4	LIG넥스원	0.7
기타	0.8	엔젤로보틱스	0.5
RISE AI&로봇 구성 비중 (%)		나우로보틱스	0.4
상장일: 23.10.24		코난테크놀로지	0.5
네이버	5.6	에스오에스랩	0.2
로보티즈	5.6	기타	3.6
LG씨엔에스	5.5		
에스피지	5.0		
레인보우로보틱스	4.9		
두산로보틱스	4.8		
현대차	4.5		
현대오토에버	4.2		
루닛	3.8		
유일로보틱스	3.5		
뉴로메카	3.3		
휴림로봇	3.3		
에스오에스랩	2.6		
클로봇	2.5		
솔트룩스	2.5		
기타	38.4		

자료: iM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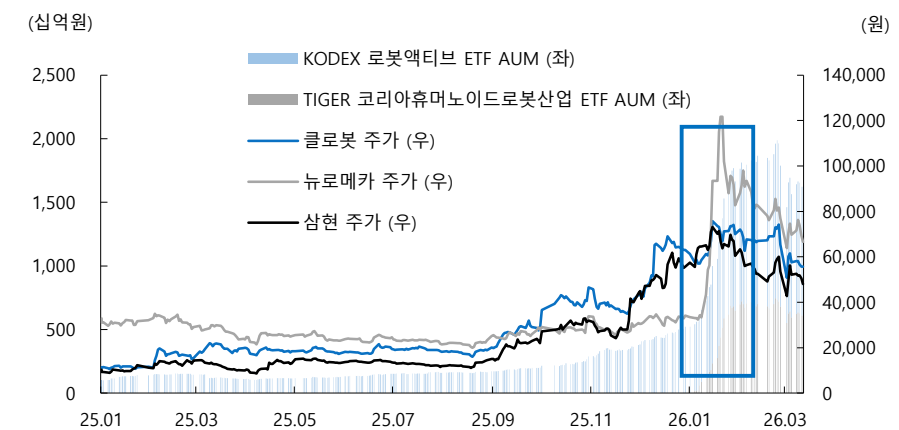
주: 3/23일 종가 기준 구성 비중

그림6. 국내 로보틱스 산업 시가총액은 1) 코스닥 150 추종 ETF AUM 확대에 따른 대형주 기여도 증가, 2) 주요 국내 로보틱스 산업 관련 ETF 출시 등이 더해진 결과



자료: Quantiwise,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7. 코스닥 내 여러 종목을 포함하는 관련 ETF가 상장되며 섹터 중소형주 밸리 관찰



자료: Quantiwise, iM증권 리서치본부

투자전략: 시장 방향성과 액티브 ETF의 성장 정도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

이란 사태발 불확실성은 코스닥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연결되고 있다. 해당 사태의 진행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 일찍이 섹터 비중을 줄이거나 늘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 로보틱스 산업은 패시브 ETF 수급의 영향력이 크고, 유동 물량이 많지 않아 이와 같은 시장 불확실성에 특히 취약하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국내 로보틱스 업체들의 유동 물량이 적어 시장 급등 구간에서 주가는 더 크게 움직인다. 이후 패시브 ETF는 리밸런싱 당시 설정한 종목별 구성 비중을 추종하기 위해 LP들의 현물 매입 절차가 진행된다 (주식 매수, 금융투자업자 수급으로 집계). 즉 현재 국내 로보틱스 산업은 1) 개인 및 기관, 외국인들의 일반적인 주식 매수, 매도, 2) LP들의 현물 바스켓 매수, 매도 등과 같이 연쇄적인 수급 이동이 관찰되는 것이다. 이에 1) 시장의 방향성, 2) 액티브 ETF 시장 확대 정도 (패시브 ETF 영향력 감소) 등의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투자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림 8].

첫째, 코스닥 지수 반등, 액티브 ETF 시장 확대 시나리오이다. 코스닥 지수가 반등한다면, 휴머노이드를 비롯한 핵심 부품 업체에 대한 시장 관심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코스닥 지수 반등 시 관련 패시브 ETF 수요가 확대되어 전술한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주요 자산운용사들의 코스닥 액티브 ETF의 출시가 이어져 패시브 ETF가 수급 내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한다면, 현재 패시브 ETF 상품 내 높은 비중을 차지한 업체가 아니라 소위 섹터 주도주로 수급이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코스닥 지수 보합, 액티브 ETF 시장 침체 시나리오이다. 코스닥 지수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1) 코스닥 지수 패시브 ETF 수요 하락, 2) 전반적인 국내 로보틱스 산업에 대한 기대 감소 등에 따라 섹터 투자 심리는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액티브 ETF 시장이 예상 대비 성장하지 못한다면, 기존 패시브 ETF 수급 구조 특성상 하락 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조정 국면이 지난 후 섹터 반등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된다. 국내 로보틱스 산업의 시가총액이 커지는 과정에서 개별 기업들의 평균적인 시가총액 또한 5,000억원에 근접하고 있다. 이는 과거와 달리 일반적인 기관투자자들이 관련 종목을 펀드로 편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여러 기관투자자들의 경우 패시브 ETF발 수급 불균형 등을 우려하며 개별 기업에 대한 성장 내러티브에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쉬이 펀드에 편입하지 못했다. 즉 조정 국면 후 일반 기관들의 저가 매수 흐름에 따른 섹터 반등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림8. 시나리오별 국내 로보틱스 산업 투자전략 모식도

코스닥 지수 반등, 액티브 ETF 시장 확대	코스닥 지수 보합, 액티브 ETF 시장 침체
휴머노이드 관련 핵심 부품 업체 관심 지속 (긍정)	코스닥 지수 추종 패시브 ETF 수요 감소 (부정)
지수 반등에 따른 액츄에이터, 감속기를 비롯한 휴머노이드 관련 업체에 대한 시장 관심 지속	코스닥 150에 포함되어 있는 중·대형주 위주의 추가 하락 가능성 높음
코스닥 지수 추종 패시브 ETF 수요 확대 (부정)	코스닥 액티브 시장 침체 (부정)
코스닥 150에 포함되어 있는 중·대형주 위주의 추가 상승 가능성은 높지만, 수급 불균형 심화 가능성	코스닥 액티브 ETF 영향력이 확대되지 못한다면, 패시브 ETF 중심의 수급 구조에서 추가 하락폭은 더욱 클 것
코스닥 액티브 시장 확대 (긍정)	조정 국면 후 기관투자자들의 펀드 편입 (긍정)
코스닥 액티브 ETF 시장 확대를 가정하면 패시브 ETF 영향력 감소에 따른 섹터 수급 불균형 해소 가능	평균 시가총액이 높아짐에 따라 기관투자자들의 펀드 편입이 대부분 가능. 최근 심화된 수급 불균형 이슈가 해소된다면 조정 국면 후 기관 중심의 매수세 가능성 높음

자료: iM증권 리서치본부

Compliance notice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의견]

종목추천 투자등급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일 증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 Buy(매수):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 Hold(보유): 추천일 증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 Sell(매도):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 (중립)
- Underweight (비중축소)

[투자등급 비율 : 2025-12-31 기준]

매수	중립(보유)	매도
90.6%	9.4%	-